

은행 (Positive)

12월 연체율: 개선 전망

▶ Analyst 김도하 doha.kim@hanwha.com 3772-7479

국내은행의 2025 년 말 연체율은 0.50%(+6bp YoY)로, 연중 최저 상승폭으로 마감했습니다. 12 월 지표로써는 신규 연체의 감소와 연체 정리 규모의 증가가 동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 대출 성장 부진에도 연중 연체율 상승 속도가 둔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, 2026 년 중 업종 연체율이 개선(YoY)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합니다.

국내은행 12월 말 연체율 0.50%(+6bp YoY)로 상승

- 국내은행의 2025년 말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 이상 연체 기준)은 0.50%(+6bp YoY)로, 연중 최저 상승폭으로 마감 (그림 1~6)
-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0.78%(+14bp YoY), 자영업자 연체율은 0.63%(+3bp YoY)로 상승. 자영업자 연체율의 상승 폭은 연중 최대 17bp에서 의미 있게 축소됨.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은 0.12%(+9bp YoY)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마감
- 가계 연체율은 0.38%(flat YoY)로 전년 수준에서 마감. 신용 등 일반대출은 0.75%(+1bp YoY), 주택대출 연체율은 0.27%(+1bp YoY)로 각각 연중 최저 상승폭으로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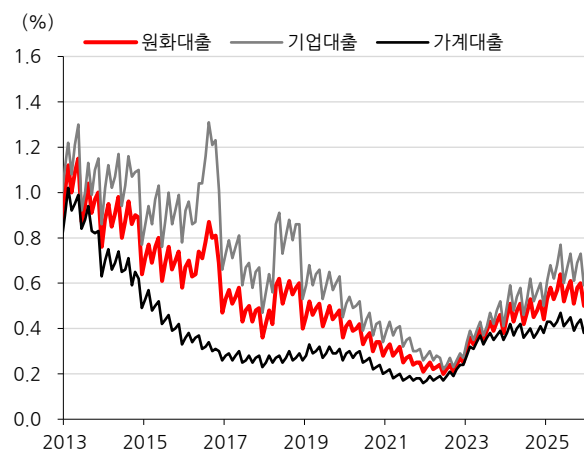
신규 연체 규모, 18개월래 최저

-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2025년 말 12.1조원으로 18% YoY 증가한 것으로 추산 (그림7)
- 12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는 2.4조원으로 2024년 하반기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 (그림9). 연체채권 정리(상·매각) 규모는 5.1조원(+19% YoY)으로 증가했는데, 연체 정리율로는 2024년 12월과 유사한 수준 (그림10)
- 기업 (추정): 12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+22% YoY로 추산. 기업대출 및 연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중소기업의 연체 증가율은 2025년 하반기 들어 +20~30% YoY로 낮아졌는데(직전 12개월 평균 +40% YoY), 추가적인 하향 안정화가 나타나야 연체율 둔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(그림12)
- 가계 (추정): 12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+3% YoY로 추산. 이는 2022년 6월 이후 최저 증가율에 해당 (그림12)

연체율 개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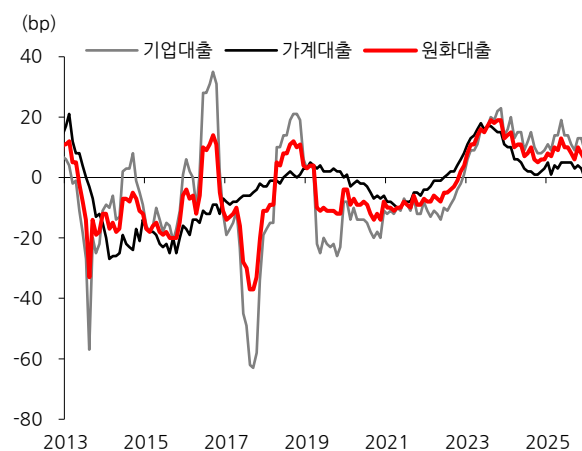
- 12월 말 연체율의 상승폭 축소는 신규 연체의 감소와 연체 정리 규모의 증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침. 계절성을 감안한 3개월 이동평균 연체잔액은 그 규모가 8개월째 횡보하고 있음 (그림7)
- 2026년 중 은행업종의 연체율이 개선(YoY)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함. 대출 성장이 부진했음에도 연체 잔액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연중 연체율 상승 속도가 둔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
-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연체율 개선 전망을 지지하는 요인. 한편 통상적으로 시장금리와 은행의 대손 인식에는 16~18개월 수준의 시차가 존재. 4Q25부터의 시장금리 상승이 건전성 부담으로 전이되는 시점이 변수가 될 전망

[그림1]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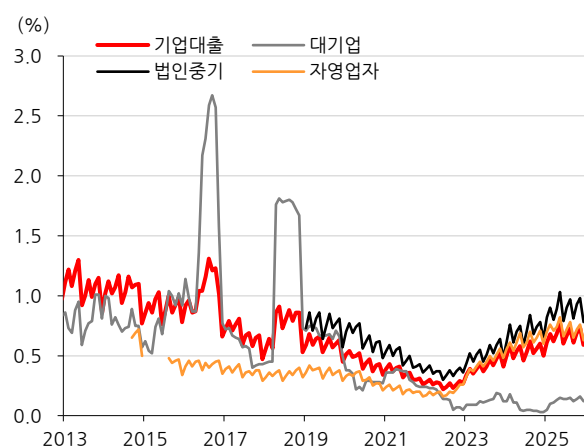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2]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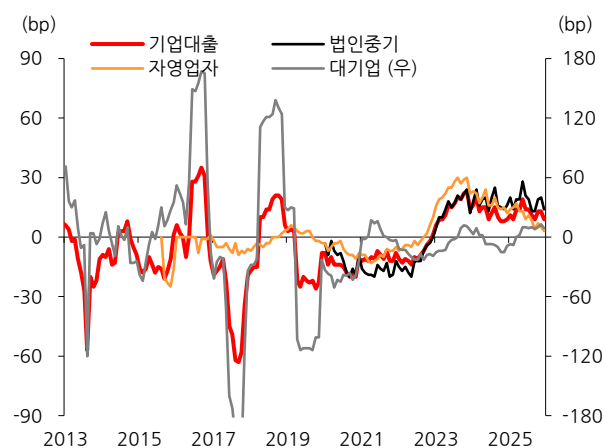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3]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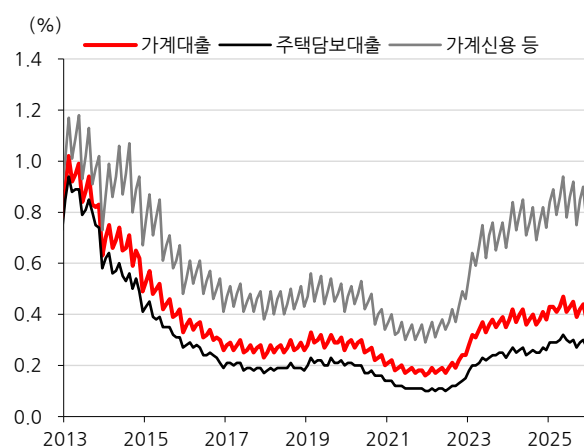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4]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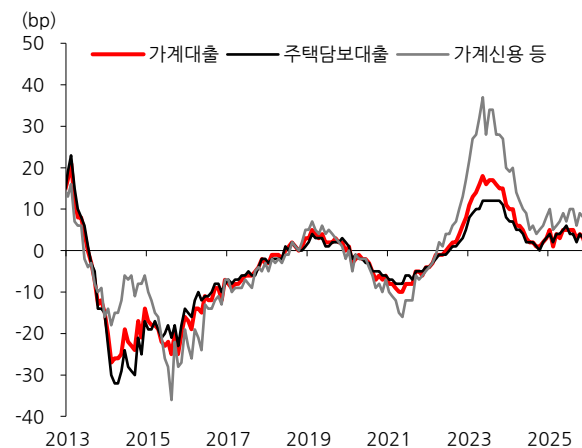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5]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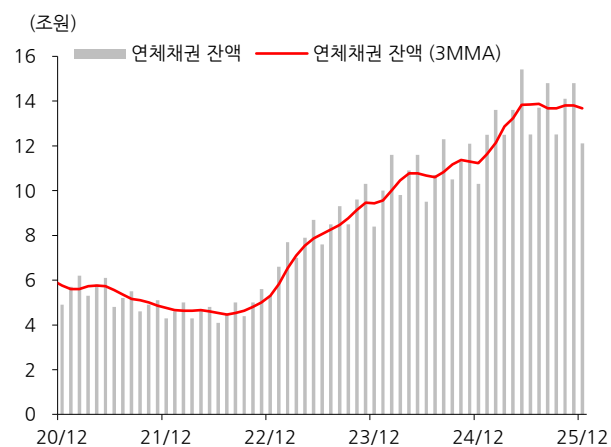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6]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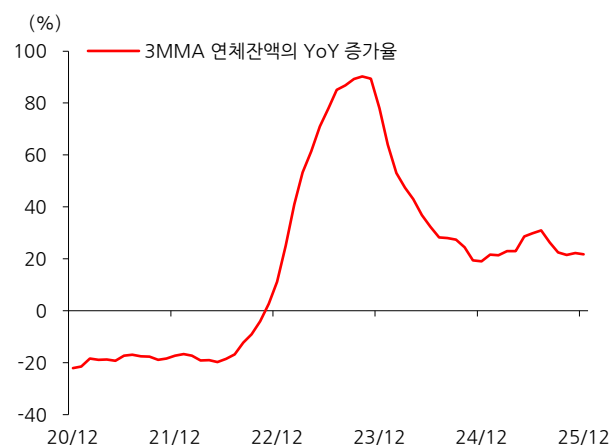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7]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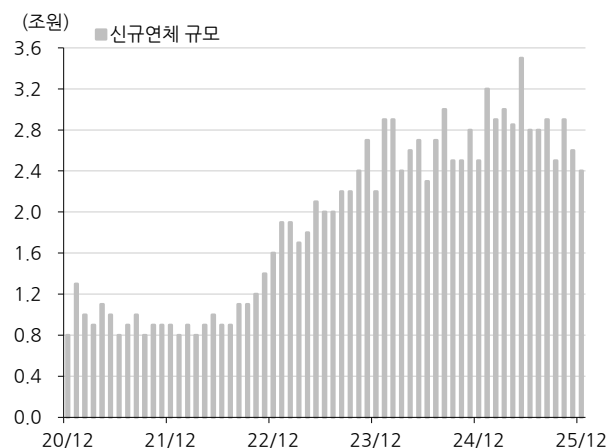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8] 3개월 이동평균 연체채권 잔액의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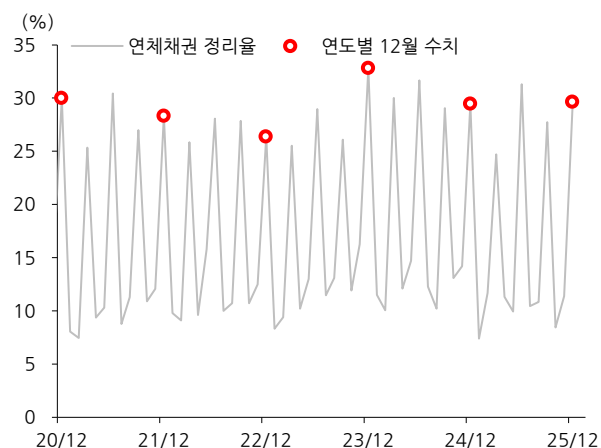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9]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


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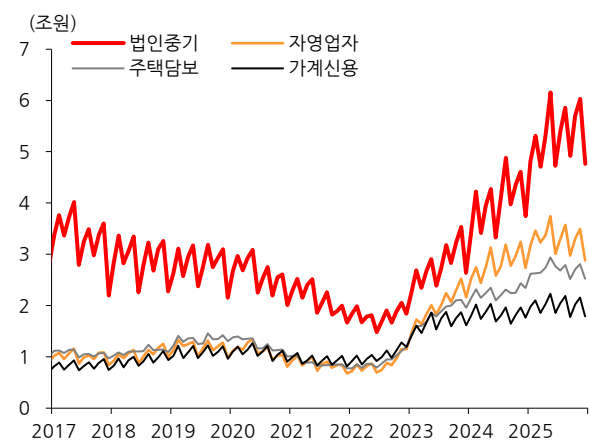
[그림10] 월 중 연체채권 정리율



주: 당월 정리 규모/(전월 연체잔액+당월 신규연체)의 비율로 산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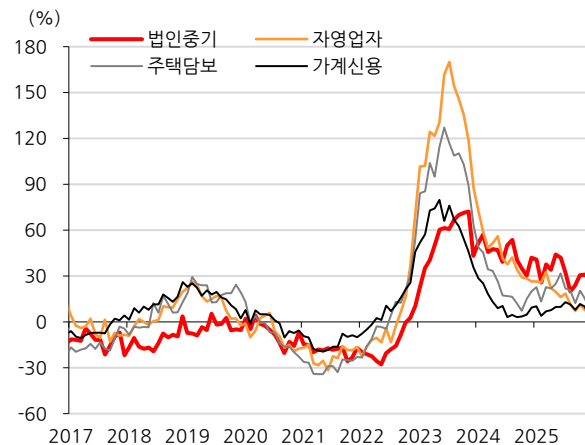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1]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(추정)



자료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2]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(추정)



자료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Compliance Notice]

(공표일: 2026 년 2 월 25 일)

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,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.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(김도하)
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.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[종목 투자등급]

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+15%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(매수) 의견을 제시합니다. 또한 절대수익률 -15~+15%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(보유) 의견을, -15%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(매도) 의견을 제시합니다.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,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.

[산업 투자의견]

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(긍정적)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(중립적) 의견을,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(부정적)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.

[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]

(기준일: 2025 년 12 월 31 일)

투자등급	매수	중립	매도	합계
금융투자상품의 비중	87.0%	13.0%	0.0%	100.0%